

자막번역과 텍스트 외적 요소: 공유지식을 중심으로*

오 미 형

(한국의국어대)

1. 서론

1898년 한국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Colbran)과 보스윅(Bostwick)의 합자로 설립된 한성전기회사가 서울에 전차를 부설하고 승객을 끌기 위해 활동사진을 상영한 것(김진환 1991: 37)을 시작으로 한국의 영화 수입은 그 규모와 비중 면에서 큰 성장을 거듭해 왔다¹⁾.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기업의 제작 및 배급의 참여, 창투사나 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의 유입 등을 기반으로 산업적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영화와 관객의 소통을 담당해 온 자막은 ST 내용의 충실한 전달이라는 번역의 기본 목적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관객에게 감동과 흥미를 제공해 영화의 상업적 성공에 기여해야 하는 좀 더 포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1978년 수입쿼터의 대폭 축소 이후 영화 수입 급감도 있었으나, 1985년 제 5차 개정 영화법 시행 이후 영화수입이 개방되며 1988년을 기점으로 수입영화 평수가 한국 영화를 추월하기 시작함(한국영화연감 2005: 21).

괄적인 목적 달성에도 충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논문은 문화적 지시체를 대상으로 영화자막 번역 시 텍스트 외적 요소, 그 중에서도 독자의 공유지식과 번역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번역단위 중 문화적 지시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존 활자 텍스트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부연설명이나 각주 등과 같이 문화적 지시체에 적용가능한 번역 방법이 자막번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막번역에 활용가능한 문화적 지시체의 번역방법을 분석하는 것은 자막번역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유지식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식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문화적 지시체는 독자의 지식 유무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더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영화 총 10편을 대상으로 문화적 지시체에 대한 자막번역을 분석하여 TT 독자가 보유한, 또는 보유하고 있다고 번역자가 전제하는 공유지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막 번역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와 문화적 지시체

인류학적으로 처음 문화를 정의한 타일러(Tylor 1871)는 문화를 “지식, 믿음, 예술, 양심이나 내심(內心)의 규범, 법, 관습 및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된 모든 특성 및 습관”이라고 하였다(Ke Ping 1999: 134 재인용). 그 후 다양한 학자들이 문화를 정의해왔고, 특히 말리노스키(Malinowski 1935, Katan 1999: 72 재인용)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강조하며 언어의 이해에 문화,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문화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외부와 유리된 단일의 동질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 사용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담화행위 중 다른 집단과 자신의 집단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분명 존재한다. 또한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동의하더

라도 그 문화가 발현되는 표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문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 지시체²⁾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근희 2005; 정인희 2007; 노진서 2007; 김도훈 2006; Trincanato 2009).

이근희(2005)는 문화 관련 어휘의 번역 방법을 논하면서 문화 관련 어휘란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언어 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하거나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는 어휘”라고 정의하고, 고유 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원천 문화 내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관용어, 도량형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사하게 정인희(2007)는 영화번역을 연구하며 문화적 측면의 번역 분석대상 중 하나로 문화적 어휘를 설정하고 그 하위에 제품명, 고유한 장소명 등을 다루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잉스(Inggs 2003), 노드(Nord 2003), 빌러(Wyler 2003)등에서 볼 수 있듯 고유 명사, 음식, 특정 장소의 이름 등의 어휘가 문화 관련 번역의 분석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물론 문화를 행동, 공예품, 민속 등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가치, 제도, 믿음 등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Katan 1999: 17) 경우가 많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문화의 표상을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문화의 심층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층위의 문화적 지시체가 연구 대상으로서 열등하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문화가 가진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적되고 공유된 믿음, 가치, 행동 등이며 이것은 구성원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 표현 등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사물이나 행위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와 그 사회의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비어빅(Wierbick 1977: 2-5) 역시 물질문화와 의식, 제도는 결국 사람들의 가치와 이상, 태도를 비롯해 세계관과 인생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문화적 지시체에 해당하는 어휘는 특정 사회의 생활상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전수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어휘 수준의 문화적 지시체는 개념이나 가치, 믿음을 나타내는 어휘와 마찬가지로 한 언어사회의 문화를 표상하는 충분한 단위로 볼 수 있다.

2) 문화적 지시체(cultural reference)는 문화(요)소(cultural elements),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words)등 으로서도 불림.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지시체로 통일함.

2.2 텍스트 외적요소로서의 공유지식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 외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텍스트 외적요소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글(말)로 이루어진 텍스트 외에 해당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즉, 독자의 기대, 텍스트 수용의 시간과 장소, 텍스트가 번역되는 동기, TL 문화 시스템 등 나머지 모든 요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요소 중 특히 독자에 대한 강조는 여러 학자에 의해 언급되었다. 역동적 평가를 논의한 나이다(Nida 1964)와 의사소통적 평가를 논한 뉴마크(Newmark 1991)는 모두 의사소통의 일부인 참여자로서의 독자를 고려한 평가 달성을 주장한다. 베르미어(Vermeer 1989)와 노드(1997)로 대표되는 기능주의는 보다 명시적으로 독자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다. 인간의 행위로서 번역은 목적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T뿐 아니라 번역의 상황적 맥락인 TT의 독자, 번역 의뢰인, TT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번역에 있어 독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목적, 텍스트를 수용하는 시간과 공간 등 다양한 측면이 있겠으나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중 하나는 공유지식(mutual knowledge)이다. 공유지식이란 ‘공유하거나 공유한다고 알려진 지식(Smith 1982: xii)’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화자와 청자는 이러한 지식을 100%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는 것이며, 확실함의 정도도 짐작(assuming)이 가능한 정도의 정확성이면 이해를 달성하는 데에는 충분하다(Sperber & Wilson 1982: 69). 텍스트의 생성과 수용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이기 때문에(Sperber & Wilson 1982: 61-85), 화자와 청자 모두 상대의 추론과 전제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ST 화자와 TT독자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번역자는 ST 화자가 전제한 지식을 TT 독자가 어느 정도나 공유하고 있는지 알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트(Witte 1994: 72)는 “번역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독자의 지식, 또는 지식의 부족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의 정도가 문화간 상황에서 발생

하는 행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뉴버트와 슈리브(Newbert & Shreve 1992: 53-56) 역시 번역에 있어 중요한 지식 중 하나로 공유지식을 강조한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유지식은 공통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을 통해 축적된다. 그렇다 보니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집단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번역에서는 공유지식의 차이가 근본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번역자는 한 문화 집단의 지식과 다른 문화 집단의 지식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자는 텍스트를 번역할 때 단순히 언어적 요소의 총합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지식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카탄(Katan 1999: 10-12)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번역자가 문화의 중개인(cultural mediator)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때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사회에 대한 지식을 꼽는다. 사회에 대한 지식이란 역사, 전통, 가치, 환경 등에 대한 지식으로 이러한 지식은 해당 문화의 인지적 환경을 구성하며, 문화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번역자는 ST에 담긴 ST 문화에 대해 TT 독자가 어느 정도나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3 문화적 지시체의 번역

문화적 지시체에 대한 번역 방식을 바라보는 큰 틀로는 자국화와 이국화³⁾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 자국화와 이국화의 개념을 세운 슈라이어마흐(Schleiermacher 1813)는 당시 번역의 최대 논점이었던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마치 번역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번역자는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가능한 한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 접근하

3) 문화적 지시체를 비롯해 TT 독자에게 생경한 사물이나 개념을 번역하는 전략은 크게 SL문화지향적인 것과 TL문화지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음. 본문에 언급된 슈라이어마흐 외에 베누티(Venuti 1992)는 ‘foreignizing translation’과 ‘domesticating translation’의 표현을 사용. 관련 한국어 번역은 ‘이국화’와 ‘자국화’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208), ‘낯설게 하기’와 ‘친숙하게 하기’(이근희 2005: 80) 등 다양함. 본 논문에서는 ‘자국화’와 ‘이국화’로 통일함.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문화적 지시체 번역방법에 대해 카탄(1999: 151-152)은 ‘칭킹(chunking)’을 통해 해당 어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재료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한 다음 그것을 TL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구성과 효과를 가진 것을 찾는 것⁴⁾이라고 한다. 문화적 지시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베이커(Baker 1992: 10-45)는 어휘 층위에서 등가어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번역 전략 여덟 가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표 1: 베이커의 어휘층위 번역 전략⁵⁾〉

번역 전략	설명
상위어로 번역	상위 범주에 속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단어로 번역하는 것
중립적, 덜 표현적인 단어로 번역	감정이나 정서가 담긴 어휘의 등가어가 TL에 존재하지 않을 때 감정이나 정서를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 또는 그 정도가 낮은 단어로 번역하는 것
문화대체어로 번역	SL과 명제적 의미는 다르지만 TT 독자에게 유사한 영향을 끼치는 TL 문화와 결부된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하는 것
차용 또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	SL 어휘를 그대로 빌려와 번역하는 것. 빌려온 단어에 의미를 설명하여 덧붙이는 것
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SL 어휘 개념이 TL에서는 다른 형태로 어휘화되어 있거나 ST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정 형태가 TL규범상 어색한 경우 TL 어휘와 관련이 있는 유사한 어휘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SL 어휘 개념이 TL에서는 어휘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위 개념에 속하는 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거나 SL어휘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생략	특정 어휘의 의미가 텍스트의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길

4) 카탄(1999: 152)은 특정 문화의 커피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Maxwell House’라는 이름을 번역하면서 일반적인 고유명사 번역방법으로 차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유머 효과와 커피상표라는 구성물로 칭킹해 TL(이탈리아어)에서 ‘Illy Caffè’라고 번역한 예를 제시.

5) 베이커(1992: 10-45)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정리.

	게 설명하여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의미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략하는 것
삽화를 이용한 번역	공간의 제약이 있거나 간략하게 요점을 부각해야 하는 경우 삽화를 통해 번역하는 것

이 중 본 연구의 대상텍스트인 자막번역에서 좀 더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전략이 있는가 하면, 적용이 어려운 또는 불가능한 전략도 있다. 자막번역은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발화(말)가 자막(글)으로 번역되는 모드 변화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활자텍스트에 적용되는 번역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절(adaptation)⁶⁾ 또는 번역적 변안(transadaptation)⁷⁾에 해당하는 번역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물론 자막번역에서 이루어지는 함축적 번역, 생략의 활용 등에 대해 진정한 번역(translation proper)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과연 번역이 텍스트의 요소, 측면, 메시지의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거트(Gutt 1991:101-2)는 관련성 이론을 내세우며 번역은 독자에게 적절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독자가 불필요하게 처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ST가 의도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쿠스마울(Kussmaul 1997)은 ‘충분한 정도의 정확성 격률(maxim of the sufficient degree of precision)’을 제시한다. 이 격률은 텍스트라는 맥락에서 발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벽하게 재현해야한다는 기존의 격률과 달리 충분한 정도만의 정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맥락에서 관련이 있는 의미적 특질(들)만을 재생하는 것(Kussmaul 1997: 92)이 번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베이커의 번역방법은 차용에서 ST에는

- 6) ‘adaptation’은 TL독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ST의 문화적 내용을 TL문화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번역절차로, ‘의역’ 또는 ‘변안’이라고 번역됨. 많은 경우 변안은 번역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부정적 함의가 있어 본 논문은 ‘조절’로 통일.
- 7) 갬비어(Gambier 2003: 178)는 번역이 단어 대 단어의 전환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아우르는 것이며 관객의 필요, 기대, 시청각소통의 다양한 방식 등을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자막번역 역시 번역 본연의 영역에 속하며 TT 독자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번역적 변안(transadaptation)이라고 규정.

없는 삽화를 삽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번역에 상당한 활용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막번역의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특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방법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시간과 공간내에서 독자가 최대한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막의 특성상 베이커에서 언급되지 않은 번역방법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80년대 개봉작 6편과 2000년대 개봉작 4편, 총 10편의 영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화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심의 대본 확보 가능성⁸⁾이다. 현재는 극장 개봉과 비디오(DVD포함) 발매가 시기적 차이를 두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80년대만 해도 극장 개봉과 비디오 발매가 상당 기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실제 80년대 번역된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디오가 아닌 실제 상영관에 걸린 자막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극장판, 공중파TV용, 케이블용, 비디오용에 따라 동일한 영화라도 제한되는 자막글자수가 다르기 때문에(정인희 2007: 16) 2000년대 영화에 대해서도 상영관 영화 자막으로 분석 대상을 통일하였다. 분석 대상 영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영화>

영화명	개봉년도	등급(미/국내) ⁹⁾
그렘린 (Gremlins)	1985	PG/ 전체관람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Out Of Africa)	1986	PG/ 18세 이상
백 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	1987	PG/ 12세 이상
구니스 (The Goonies)	1986	PG/ 전체관람가

8) 상영관 자막은 영화사를 통해 입수하거나 실제 상영시 전사하는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영관용 심의 자막 대본을 대상으로 함.

9) 미국의 관람등급은 G(전체 관람가), PG or M(부모지도하 연소자 관람가), PG-13(13

더티댄싱 (Dirty Dancing)	1988	PG-13/18세 이상
레인맨 (Rain Man)	1989	PG-13/ 18세 이상
미트 페어런츠(Meet the PArnts)	2001	PG-13/ 12세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Shallow Hal)	2002	PG-13/ 15세
금발이 너무해 (Legally Blonde)	2001	PG-13/ 12세
리브 인 맨하탄 (Maid In Manhattan)	2003	PG-13/ 12세

상기 영화를 대상으로 ST에 해당하는 영어대사 중 문화적 지시체와 이에 대한 TT인 한국어 자막을 수집하였다. 문화적 지시체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지목된 장소명, 인명, 음식명,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도량형, 그리고 제품명 등 ST 문화 특정한 고유명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번역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막과 활자텍스트 번역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베이커(1992)의 번역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후분류를 통해 활자텍스트 번역과 달리 자막번역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번역방법을 분석하도록 한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총 10편의 영화 중 수집된 문화적 지시체는 80년대 영화 6편에서 69건, 2000년대 영화 4편에서 111건으로 총 180건이다. 이 중 장소명은 30건, 인명 12건, 음식명 35건,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4건, 도량형 7건을 찾아 볼 수 있었다. ST 문화 특정한 고유명사로 제품명 39건, TV프로그램이나 매체명 등 대중문화 관련 고유명사 40건, 관습 및 제도 관련 13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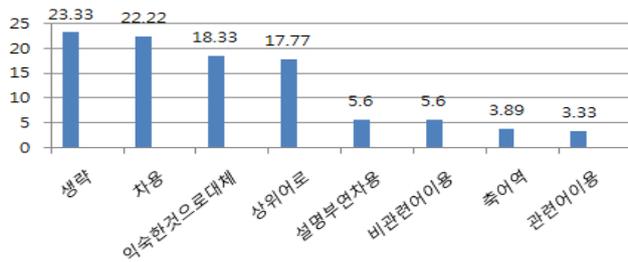
번역방법을 분석한 결과 활자텍스트의 번역과 달리 자막번역에서는 경제성과 함축성을 추구하는 번역접근의 특성상(Delabastita 1989; Kovačić 1994) 생략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반면, 설명을 덧붙이거나 (비)관련어로 풀어쓰는 것과 같이 ST에 비해 길이가 증가하는 번역방식은 자주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삽화

세이하 부모지도요), R(미성년 부모동반시만 관람가), NC 17(미성년자관람불가), X (성인포르노)로 나뉜.

를 이용한 번역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드러지는 번역 전략은 문화대체어로의 번역인데, 이는 베이커(1992)가 설명한 것과 달리 TT 독자에게 유사한 영향을 끼치는 TL 문화와 결부된 단어 나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하는 것 외에도 SL 문화 내에서 TT 독자가 좀 더 친숙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시체로 대체하는 전략도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TL인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기 위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등의 지나치게 TL 문화가 드러나는 것으로 대체할 경우 영상 속 이국적 등장인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박찬순 2005: 183)는 점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베이커의 번역 전략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축어역을 찾아 볼 수 있는데, SL을 그대로 TL로 전환하는 축어역은 많은 경우 ST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의 전략으로 꼽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도 축어역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번역방법을 생략, 차용, 설명이 부연된 차용, 상위어로의 번역, 비관련어를 이용한 번역, 관련어를 이용한 번역, 익숙한 것으로의 대체, 축어역으로 분류하면 그 비중의 아래 <그래프 1>과 같다.

<그래프 1: 문화적지시체 번역방법 (단위: %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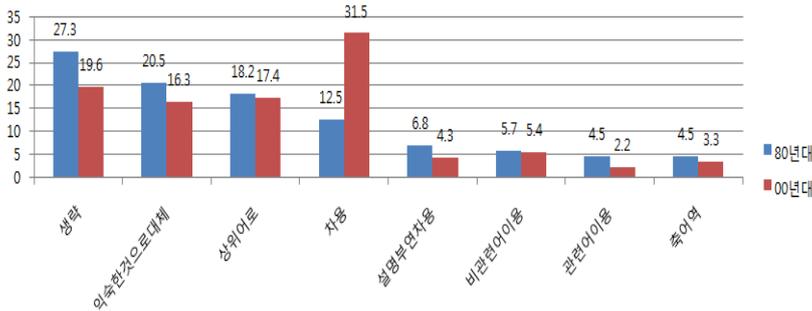


이러한 번역방법을 1980년대와 2000년대 영화로 나누어 보면 <그래프 2>와 같이 시대에 따라 활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80년대 영화의 경우 생략, 익숙한 것으로 대체, 상위어로 번역, 차용, 설명이 부연된 차용, 비관련어 이용

10)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반올림

한 풀어쓰기, 관련어 이용한 풀어쓰기, 축어역의 순이었다. 반면, 2000년대 영화는 차용, 생략, 상위어로 번역, 익숙한 것으로의 대체, 비관련어 이용한 풀어쓰기, 설명이 부연된 차용, 축어역, 관련어 이용한 풀어쓰기의 순으로, 특히 차용의 활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2000년대 영화에서 SL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2000년대 TT 독자가 SL문화에 대해 공유하는 지식이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설명이 부연된 차용,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등 자막의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번역방법은 80년대와 00년대 모두에서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그래프 2: 80년대와 00년대 번역방법 비교 (단위: %)〉



4.1 생략

생략은 1980년대와 2000년대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다. 물론 생략을 번역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자막번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¹¹⁾ 번역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막번역은 시공간적 제약에 의해 경제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게 된다. (예1)은 처음 등장한 젊은 남성이 호텔 주인의 손자로 방학을 맞이해 호텔에 머무르는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이때 호텔경영학으

11) 본 논문에서 ‘충분한’ 번역은 최대한의 관련성을 확보해 독자가 용이하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막의 기능을 수행하는 번역을 말함.

로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넬 대학이 언급되는데 자막에서는 생략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해당 대사에서 코넬 대학에 대한 설명을 부연한다면 ST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막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생략이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예2)의 ‘슈타이너’¹²⁾도 생략되는데, 이때에는 영상에 피아노가 비춰지므로 생략은 물론 상위어인 ‘피아노’로 번역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손쉽게 피아노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1) He goes to Cornel school of hotel management (더티댄싱)

내손자 “니일”이요/“호텔경영”전공하죠

(예2) It's nothing like my Mother's Steiner (구니스)

이건 달른데¹³⁾

자막번역의 특성상 생략이 자주 사용된다면 문화적 지시체가기에 때문에, 혹은 독자의 공유지식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생략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지식에 해당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보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생략의 번역방법을 적용하다더라도 독자의 공유지식이 번역방법 결정의 고려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예3) Toothbrush, toothpick, toe nail clipper, nail file, you get your dental

mirror (그렘린)

치솔, 이쑤시개, 손톱깎기, 다 달려있습니다.

(예4) Say you hate Washington's birthday or Thanksgiving and nobody

cares (그렘린)

감사절이 싫다면 괜찮은데

(예3)과 (예4)는 모두 복수의 문화적 지시체가 등장했을 때 독자가 좀 더

12) 오스트리아 출신 유명 작곡가의 이름으로 피아노 브랜드로도 사용됨.

13) 자수 제한이 있는 자막의 특성상 줄임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80년대 영화의 경우 현재와 다른 맞춤법 표기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수정 없이 전사.

친숙하고 지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우선 번역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익숙한 것으로의 대체

SL 또는 TL 문화 안에서 독자가 익숙하게 여기거나 여길 것으로 전제되는 지시체로 대체하는 전략인 익숙한 것으로의 대체는 생략과 마찬가지로 80년대, 2000년대 영화 모두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예5) Pants & shirts are in the drawer (구니스)

내복은 둘째 설함에 있으니까

(예6) It was routine between Abbott & Costello (레인맨)

옛날 훌쭉이와 똥똥이의 연극였어

(예7) What are they Amish? (미트 페어린츠)

혹시 스님이나?

(예5)에 등장하는 팬츠나 셔츠는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ST특정적인 문화적 지시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1980년대 TT 독자에게는 서랍에 넣을 수 있는 의복의 종류로는 어색할 수 있다. 따라서 ST에 등장한 팬츠나 셔츠와는 다르지만 TL문화에서 서랍에 넣을 수 있는 의복의 종류로 익숙한 내복으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6)의 Abbott & Costello¹⁴⁾나 (예7)의 Amish 역시 TT 독자에게 익숙한 TL문화 내의 지시체로 대체되어 번역된다.

한편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독자에게 익숙한 TL문화권의 지시체로 대체해 번역하는 것과 달리, 독자가 좀 더 익숙한 SL 문화권 내의 지시체로 번역하는 것도 문화적 지시체의 자막번역 방법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예8) My name is Darth Vader (뺨투더 퓨쳐)

14) Abbott & Costello는 1920-50년대까지 미국의 라디오, TV, 영화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코미디 콤비로 한국에서 72년도부터 방송된 양훈·양석천 콤비의 ‘훌쭉이와 똥똥이’처럼 대조적인 체격의 인물들임. 동일한 캐릭터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사점에 착안해 TT 독자에게 익숙한 TL 문화권의 어휘 및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음.

내이름은 “스타 워즈”

(예9) This is Christmas, not Halloween (그렘린)

오늘은 성탄절이지 만우절이 아니야

(예10) I hope you like meat loaf (백투더 퓨처 中)

스택을 준비했어요

(예8)은 영화 속 가공의 인물명인 ‘Darth Vader’를 독자에게 좀 더 익숙한 영화제목 ‘스타워즈’로 대체하고 있으며, (예9) 역시 1980년대 독자에게는 낯선 할로윈을 보다 익숙한 SL문화권의 또 다른 기념일인 만우절로 대체하고 있다. (예10)도 소고기를 잘게 다져 양념한 뒤 구운 음식인 미트로프를 TT 독자에게 좀 더 익숙한 SL문화권의 또 다른 음식명인 스택으로 대체하고 있다.

4.3 차용

차용은 80년대와 2000년대의 자막번역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번역 방법이다. 80년대 영화에서는 차용이 12.5%를 차지한 반면 2000년대 영화에서는 31.5%를 차지했다. 또한 80년대 자막번역 중 차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영상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11)은 레인맨이 TV프로그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인데, 이미 맥락상 레인맨이 TV프로그램에 집착한다는 것이 독자에게 주어진 정보이며 다른 프로그램 명이 몇 개 언급된 상태이다. 또한 화면에 등장하는 TV에서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의 시작 장면이 배경으로 비추어진다. (예12)는 백화점의 안내방송이 나오는 장면으로 ‘워드’는 백화점 이름이다. 이 대사 역시 발화 전에 주인공들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장면이 제시되고 이때 백화점 입구에 ‘Ward’라는 백화점 이름이 영상으로 주어진 다.

(예11) I watch ‘Jeopardy’ at 5:00 (레인맨)

다섯시에 “제퍼디” 봐야해

(예12) Get a snowplow at Ward (그렘린)

제설차는 워드에서

한편 2000년대 영화는 상품명에서 지명 등에 이르기까지 영상의 보완이 없

는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차용이 이루어졌다. (예13)은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대사로 아들에게 애칭 사용하는데 80년대 영화의 경우 이러한 애칭은 모두 이름으로 대체된다. (예14)에서 (예16)은 장소명, 인명, 제품명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앞뒤 맥락상 이 고유명사들이 무엇인지 유추하기 어렵고 내용의 전개에 크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독자가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14)의 경우 호텔 메이드에게 스타킹을 사달라는 심부름을 부탁하는 장면으로 미국 뉴욕의 값비싼 상점이 자리한 매디슨 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막번역에서는 매디슨이 거리의 명칭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아 매디슨 가에 대한 독자의 공유지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15)는 주인공의 상사가 외부에서 영입되었음을 알려주는 대사인데 주인공의 직장이 어떤 업종인지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메릴’이라고 하면 금융권 기업인 ‘메릴린치’라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미국 TV프로그램인 ‘M*A*S*H’가 등장하는 (예16)에서도 매우 산만한 등장인물 ‘Klinger’에 대해 독자가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대변의 모양을 이 인문에 비유하는 대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예13)에서 (예16)은 ST 문화의 특정 인물, 상품, 고유명사 등에 대해 TT 독자가 공유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번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예13) I'm sorry, Mr. CoolGuy (러브인맨하탄)

미안해, 쿨가이

(예14) Would you run down to Madison and get me 3 pairs of pantyhose?

(러브인맨하탄)

매디슨에서 스타킹좀 사다 줄래요?

(예15) We decided to go with the gal from Merrill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메릴 출신이 스카웃됐어

(예16) You gotta get in here and look at this turd

It looks just like klinger from M*A*S*H(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할, 빨랑 와서 내 똥 좀 봐

매쉬의 클링거

4.4 설명이 부여된 차용

설명이 부여된 차용은 고유 명사의 차용만으로는 그 고유 명사가 사용된 의도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영화에서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번역 전략이다.

(예17) It's a Delorean, right. But, what did you do to it?(뽁 투더 퓨처)

드로리안? 스포츠카?

(예18) I grew up in Bel Air. (금발이 너무해)

난 최고의 부촌 벨어어 출신이야

(예19) Wheel of Fortune (레인맨)

“휠 오브 포춘”(행운의 바퀴)

(예20) Incredible. He should work at NASA (레인맨)

기막히잖아요. NASA(항공우주국)에서 일해야겠어

(예21) We're sending you back to the future (뽁 투더 퓨처)

넌 미래로 돌아 간다/ 뽁 투더 퓨처!

(예17)에서 (예21)과 같이 설명을 부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18)은 ST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면이 필요한 해당 문화적 지시체의 속성을 덧붙여 번역하는 방법인데 반해, (예19)와 (예20)은 괄호를 통해 해당 지시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번역자의 가시성을 지양하는 자막번역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데 80년대 영화에서만 두 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마지막의 (예21)은 영화의 제목인 ‘Back to the Future’가 구호처럼 자주 등장하는데 외래어를 넘어서 영어 구문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구호로서의 ‘back to the future’를 차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4.5 축어역

SL을 그대로 TL로 전환하는 축어역은 자주 사용된 번역방법은 아니다. 베이커(1992)에서 축어역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등가어가 없는 상황에서 축어역이 대부분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축어역은 특히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화

적 지시체의 경우 아래의 (예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적 지시체에 대한 충분한 자막번역의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22) Let's see at Twin Pines Mall at 1:15 tonight (뽕 투더 퓨처)
 쌍솔 쇼핑 센터에서 오늘밤 1시 15분에 보자

실제로 전체 영화 중 축어역된 사례는 매우 적으며, 'bean dip'을 '콩소스'로, 'cabbage roll'을 '양배추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이 주로 음식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6 상위어로의 번역

구체적인 문화적 지시체를 번역하는 대신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번역하는 방식인 상위어로의 번역은 아래의 (예23)과 (예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0년대와 00년대 모두에서 SL문화 특수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명 등에 대해 자주 사용되었다.

(예23) It's your top score on Pole Position (구니스)
 네 전자 오락 점수 비슷하구나

(예24) How about a bottle of Don for my buddy(내겐 너무 가벼운그녀)
 내 친구에게 샴페인 한 병

위의 예는 모두 구체적인 문화적 지시체를 상위의 개념어로 번역한 사례이다. 유사하게 아래의 (예25)와 (예26)도 상위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예25)는 상위의 개념어 중 문맥의 이해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예25)의 'Cher tape'은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쉬어'의 뮤직비디오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상위어로는 뮤직비디오, 가수의 비디오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등장인물이 게이라고 확신하는 장면으로 '쉬어의 테이프'라고 번역했을 때 '쉬어'가 동성애의 아이콘¹⁵⁾임을 아는 독자만이 해당 지시체를 통한 메시지를 파악할

15) <http://en.wikipedia.org/wiki/Cher>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수 자체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고 ‘쉬어’라는 가수가 가진 문화적 의미를 살려 ‘게이용 테이프’라고 번역하고 있다.

(예25) He did leave a Cher tape in the pool house once(금발이 너무해)
수영장에서 게이용 비디오가 발견됐었어

흡사하게 아래의 (예26)도 독자의 공유지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과 아닌 것에 따라 번역방법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예26) Regan? Ronald Regan?
Then, who's vice president? Jerry Lewis?
I suppose Jave Wymann is the first lady
and Jack Benny i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백투더 퓨처)
레이건? 그 로널드 레이건?
그럼 부통령은 가수고?
대통령 부인은 여배우?
재무 장관은 코미디안?

(예26)은 80년대의 주인공이 50년대로 돌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주인공이 당시 영화배우인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50년대의 인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대사이다. 이 대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명의 번역방식은 독자의 공유지식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레이건’의 경우 독자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공유지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용한 반면, ‘Jerry Lewis’, ‘Jave Wyann’, ‘Jack Benny’는 이와 달리 ‘가수’, ‘여배우’, ‘코미디안’이라는 상위어로 번역하고 있다.

4.7 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는 TL문화에도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다른 형태로 어휘화된 경우 SL단어와 유사한 어휘를 사용해 풀어 쓰는 것이다. (예

27)의 ‘Simon says’는 어린애들의 놀이 일종으로 TL문화 내 표현으로는 ‘가라사대 놀이’와 흡사하다. 하지만 ‘Simon says’이건 ‘가라사대 놀이’이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이 대사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이 대사는 흥분한 주인공이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삽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주인공의 제안에 황당해하는 남주인공의 모습을 ‘Simon says’라는 게임이 가진 속성 중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 유치한 것이라는 점을 ‘어린애’라는 관련어를 사용해 번역하고 있다.

(예27) What you wanna do it, what? Take a time out for a Simon says? (더티댄싱)
 뭘 하겠다고? 어린애라도 끌고가?

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는 4.4의 설명이 부연된 차용이나 4.8의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와 마찬가지로 자막의 글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석대상 데이터 중 낮은 빈도를 보였다.

4.8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는 ST에 사용된 단어가 TL에서는 어휘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개념에 속하는 단어를 이용해 풀어서 번역하거나 SL단어의 복잡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28) I'm going to Mississippi with a couple of bus boys for the freedom ride (더티댄싱)
 인권 운동 할거야
 (예29) I have the Viking range & the twin Sub-Z's (미트 페어런츠)
 오븐 냉장고 다 수입품이죠

(예28)에 등장하는 ‘freedom ride’는 공공시설에서의 흑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지역을 도는 운동인데, ST 문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동시에 자막이기 때문에 구

체적인 설명을 부연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운동의 상위개념에 속하는 ‘인권운동’을 활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예29)도 유사하게 미국의 전문 주방 제품 브랜드인 ‘Viking range’와 ‘Sub-Z’가 고가품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지만 고가품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고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품’을 활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화를 대상으로 공유지식이라는 텍스트 외적 요인과 문화적 지시체의 번역방법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번역이 광의의 의사소통 행위이며, 특히 영화라는 텍스트는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의사소통의 극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자가 문화적 지시체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어 독자의 공유지식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베이커(1992)의 어휘차원의 번역 전략을 대입해 1980년대와 2000년대 영화 총 10편을 분석한 결과 자막번역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는 함축적, 경제적 번역의 일환으로 생략이 자주 적용되는 번역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생략 중에서도 독자의 공유지식에 따라 생략의 대상이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80년대와 00년대 독자의 공유지식 정도 또는 공유지식 정도에 대한 번역자의 전제가 다름에 따라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차용이 눈에 띄게 적극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ST의 문화적 지시체를 이와 다른 TL문화권내의 지시체로 대체하는 문화대체어로의 번역이 이 외에도 SL문화권내에서 TT 독자가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다른 SL지시체로 대체하는 번역방식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자막번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관련어를 이용한 풀어쓰기, 설명을 부연한 차용 등 자막의 길이가 증가할 수 있는 번역방법의 활용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독자와의 관련성,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자막번역에서 특히 독자가 가진 공유지식이 구체적인 번역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번역방법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더불어 문화가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 하지만 동시대에서도 분명히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연대별 자막번역방법의 차이와 더불어 호칭어나 공손성 등 화용론적 차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보다 폭넓게 자막번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 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31-51.
- 김진환 (1991) 「한국영화 해외진출과 외국영화 수입의 국내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노진서 (2007) 「한-영 시에 활용된 문화소의 번역 전략」, 『이중언어학』 35: 127-147.
- 박찬순 (2005)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서울: 한울아카데미.
- 영화진흥위원회 위임 (1990) 『한국영화연감』, 통권 제 12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영화진흥위원회 위임 (2005) 『한국영화연감』, 통권 제 27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정인희 (2007)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한 영상번역연구」, 서울: 세종대학교대학원.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 Book on the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elabastita, Dirk (1989) “Translation and mass-communication: Film and T.V. translation as evidence of cultural dynamics”, *Babel* 35(4): 193-218.
- Gambier, Yves (2003) “Introduction screen transadaptation: Perception and

- reception” in Gambier Yes(ed),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creen translation* 9(2). Oxford: St. Jerome P. 171-189.
- Inggs, Judith (2003) “From Harri to Garri: strategies for the transfer of culture and ideology in Russian translations of two English fantasy stories”, *Meta* 48(1-2): 285-297.
- Katan, Davi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 Ke Ping (1999) “Cultural Presupposition and Misreading”, *Meta* 44(1): 133-143.
- Kovačič, Irena (1994) “Relevance as a factor in subtitling reductions” in Dollerup, Cay & Lindegaard, Annette(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Insights, Aims, Visions. Papers from the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45-252.
- Newbert, Albrecht & Shreve Gregory M.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Ohio: Kent State U. P.
- Newmark, Peter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Nord, Christiane (2003) “Proper Names in Translations for Children: Alice in Wonderland as a Case in Point”, *Meta* 48(1-2): 182-196.
-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1813/199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Schulte, Rainer & Bigunet, John (eds.) (1992),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 36-54.
- Smith, Neil (1982) “Introduction”, in Smith, Neil(ed), *Mutual Knowledge*, London: Academic P. xi-xvi.
- Sperber, Dan & Wilson, Deirde (1982) “Mutual Knowledge and relevance in theories of comprehension”, in Smith, Neil(ed), *Mutual Knowledge*,

- London: Academic P. 61-85.
- Trincanato, Elena (2009) "Translating film, translating cultures: the adaptation of the cultural references to the Italian audienc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0(4): 171-186.
- Vermeer, Hans J. (1989)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translated by Chesterman, Andrew, in Venutti, Lawrence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edledge. 221-232.
- Wierzbick, Anna (1977) *Understanding cultures through their key words*, New York, Oxford: Oxford UP.
- Witte, Heidrun (1994) "Translation as a mea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in Dollerup, Cay & Lindegaard, Annette(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Insights, Aims, Visions. Papers from the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9-75.
- Wylter, Lia (2003) "Harry Potter for children, teenagers and adults", *Meta* 48(1-2): 5-14

[Abstract]

Subtitling and Extratextual Factors
— Focusing on Mutual Knowledge

Oh, Mi-hy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mutual knowledge shared with TL readers and its impact on subtitling of cultural references. For this study diverse cultural references were collected from ten sample movies produced in the 1980's and the 2000's, and diverse translational approaches based on Baker(1992)'s strategies were employed in order to see how mutual knowledge affects translational decisions and to identify proper translational approaches to subtitling, which may or should be different from those employed for the written texts.

The analysis reveals that mutual knowledge, or more precisely, translators' perception on mutual knowledge shared with TL readers affects their decisions on how to translate cultural references.

▶ Key Words: subtitling, cultural references, mutual knowledge, translation strategies, extratextual factors

오미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전임강사

mihyungoh@hufs.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번역교육, 문화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